

3. 자린고비 ‘장호생이 닮은 놈’이 지킨 오이

수집을 오래 하다 보면 수집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다. 모든 농가를 찾아갈 수 없으니 감을 가지고 찾을 때가 많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그 선입견만 믿고 어처구니없이 지나칠 뻔한 일에 대한 보고다. 토종 수집에 대한 선 짐작이 가져온 결과를 뒤엎은 사건이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토종 씨앗 수집을 시작하면서부터 박물관을 설립한 후에도 우리 마을의 토종 수집은 하지 않았다. 내가 60여 년을 살았으니 내 마을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은 토종이 없다! 이것이 내 단정이었다.

수집 중에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 있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토종이 어디 있겠나. 토종이 지금까지 남아있겠나? 특히 마을 유지들이라면 더욱 큰소리로 찾을 필요도 없다고 자신한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서면 낭패를 본다. 왜냐면 그 사람은 마을 사람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기실 아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마을도 속속들이 토종이 남아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

내가 그랬다. 나도 우리 마을이니까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여전히 농사는 짓고 있었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 와 살고 있고, 읍내와 가까워 농법도 선진 농법을 제일 먼저 들여와 옛것이 거의 남지 않아 당연히 토종 씨앗은 없으리라 짐작만 한 탓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마을에서 개파리 동부와 몇 가지 토종을 찾았다. 그중에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는 아련한 오이 맛을 가진 재래 오이를 찾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야기하기 전에 박물관이 속해 있는 우리 마을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재래 오이 수집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해야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다.

우리 마을은 장 씨들과 강 씨들의 주로 사는 집성촌이다. 본래 장 씨들의 집성촌이었는데, 후에 강 씨들이 들어오고, 그 뒤 김 씨 등 타성이 들어와 자리 잡은 집성촌 마을이다. 본향이 인동인 장 씨들은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자 불사이군 하기로 마음을 먹고 침이 우거진 마을로 은둔생활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을을 침 그늘이 짙다고 하여 갈음동이라 불렀고, 나중에 갈음이 가란이로 발음이 변화되어 현재의 마을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가란이는 우리 동네 자연부락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명으로는 처음으로 생긴 마을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장 씨들의 낙향은 바로 마을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 뒤 조선 후기에 아산지방의 강 씨들이 정치 일선에서 배제당하면서 흩어져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장 씨들은 누구에게 기대지도, 누구에게 신세를 지지도 않는 가풍이 생기면서 대부분 지독한 보수주의자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들은 자기 것을 남 주기도 싫어하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가풍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 매우 보수적인 집안으로 유명하다.

수집을 나가보면 토종을 지키는 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집불통 보수주의자이다. 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싫지만, 남에게 피해를 보기도 싫다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살기 때문에 속칭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자기 것을 잘 간수 할 수밖에 없었다. 종자 또한 마찬가지다. 맛의 보수성이라고는 표현하지만, 새로운 변화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싫은 것은 싫은 것이다. 그렇다 보니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다.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집들이 많다.

우리 마을의 가장 욕된 관용구 중에 ‘꼭 장호생이 닮은 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장호성이라는 중국인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나갈 줄 모르는 구두쇠요, 절대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법이 없는 화교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지역 관용구다. 그런데 우리 동네 장씨 집안들은 그런

관용구를 많이 들을 정도로 근검을 몸에 달고 사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기가 막힌 오이 종자 하나가 들어왔다. 어땠을까?

그들은 굳이 소문내서 부산하게 할 것도 없이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부엌 뒤템에 심었다. 당시에는 누구나 재래 오이를 심고 있었으니 그가 맛본 오이 맛의 특별함을 얘기하지 않는 한 달리 특별한 것도 없었다. 다만 소문이 하나 퍼져 있었는데, 장 씨네 집에 맛있는 오이가 있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맛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이 맛이 오이 맛이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소문만 돌 때, 당시로서는 미친 짓이었지만, 읍내의 씨앗 상회에서 사 온 오이씨인데 꼭지까지 쓰지 않은 신품종이 들어왔다며 마을에 또 미치도록 빨리 삽시간에 퍼져나갈 때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입맛을 믿었다. 신품종 덕분에 오래잖아 소문은 잣아들었지만, 가끔 누군가가 언뜻 그 오이 맛에 대해 소문을 기억하고 종자를 얻으려 가거나 신품종 오이 맛이 너무 싱거워서 얻으려 가도 씨앗 퍼트리는 것이 싫어 오이 한 개는 뚝 따서 건네주었지만, 절대로 노각은 주지 않았다. 혹여 노각이 넝쿨에 생길까 봐 종자용을 제외하곤 노각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다. 씨앗 박물관을 설립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다. 그 오이를 잃어버렸다는 소문은 난 적이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찾았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그리고 찾았다는 소문보다는 뒤늦게 장 씨네가 맛있는 오이씨가 있었는데, 그 씨를 이사 통에 놓쳤다는 소문도 함께 퍼진 것이다. 늘 뒤꼍 울타리 안에 심었는데, 넓은 집으로 이사 오면서 놓친 거라 했다.

이 소문 속에는 쌈통이란 은어가 숨어 있었지만, 우리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 소문을 듣고 박물관에선 장 씨네 오이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는데, 소문과는 달리 장 씨네는 이미 잃어버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다. 찾았다는 소문이 잘못된 것이었다. 잃어버린 안타까움만 듣고 왔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았는데, 장 씨네 오이가 마을에 돌아다닌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이 돌자 박물관도 찾아 나섰고, 장 씨네도 소문 없이 찾아 나선 모양이었다. 거의 동시에 이 오이씨를 찾았는데, 그들은 역추적해 나갔고, 우리는 어느 날 이웃집에서 장 씨네 오이라며 은근히 한 포기 주고 갔다. 그 장 씨네 집에서 종자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그 집 노각 오이를 하나 슬쩍해와 은밀히 두어 집이 나누어 먹었는데, 또 그것을 슬그머니 이웃에 갖다주며 마을에 퍼졌고 박물관에서 찾으니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워낙 장 씨네에서 안타까워해서 무슨 오이인지 말은 하지 않고 그 집에도 한 포기 심어 먹어보라고 갖다주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오이가 커가면서 점점 자기 오이를 닮아가더니 차츰 열매가 먹어도 됐다 싶을 때 따서 먹어봤는데 맛 또한 기억하는 그대로 똑같더라는 것이다. 진액의 농도며, 묵직하게 씹히는 식감이며 영락없이 자기 오이였다는 것이다. 알아챈 것이다. 잃어버린 자식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듯이 그들도 단번에 자기의 오이를 알아본 것이다.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들어보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그것이 역추적의 단서가 돼 버렸다. 자기는 준 적이 없는데, 오이가 마을에 돌았고, 급기야는 자기에까지 돌아왔으니, 이는 분명히 그가 주지 않은 오이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결국 훔쳐 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애초에 퍼뜨린 집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어렵게 처음 퍼트린 사람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서 두 집안 간에 내놓고는 싸울 수 없었고 소리 없는 싸움이 벌어졌다.

박물관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구경만 하면 됐지만, 다행히 그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노각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씨를 지키지도 못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웃과 나눠줘 같이 먹었으면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는 말이 꽤 화해의 말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자란 함께 심어야 오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수집이었다.

박물관도 모른 척하고 다시 원주인에게 한 포기 얻어 심었다.

수집을 나가보면 토종을 지키는 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집불통 보수주의자이다. 그것이 토종을 찾는 큰 노하우 중의 하나다. 반면 토종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자들은 대부분 진보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다. 여성농민회가 대표적이다. 진보가 토종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다. 이는 지독한 보수들의 문화와 생활을 인정한 것이라 본다. 진보와 보수가 한세상에서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토종만 한 것도 없다. 요 몇 년 사이에서 보여준 한국 사회에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